

1/28/18

설교 제목: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8:18-30

-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 (롬 8: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 (롬 8: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절관주** 창 3:19
- (롬 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 (롬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 (롬 8: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갈 5:5, 롬 7:24, 빌 3:21
- (롬 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절관주** 히 11:1
- (롬 8: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절관주** 히 11:27
-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롬 8: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 장 16, 17 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맏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므로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일단 상속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상속자인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큰 권리를 가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유식한지 무식한지,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학식이 높은지 낮은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요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상속인의 자녀인지 아닌지만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일단 상속인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면 이 세상 누구도 그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따라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속자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에 앞서 우리로 하여금 만왕의 왕되신 당신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의 세상 삶이 쉽지 않고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당신의 상속자로 길러 내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는 헬라어로 손익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을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손익을 계산해 보건대 현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앞으로 성도들이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사소하다는 말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란 부활과 영생, 천국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장차 누릴 부활과 영생, 천국의 영광은 성도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인간만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하늘, 땅, 산, 강, 바다, 동물, 식물, 광물 등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19~25 절).

(롬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요?

창세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 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도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롬 8: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인간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는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롬 8: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롬 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 즉 성도들이 영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마지막 날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피조물들도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그 날을 머릿 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나라가 이제 속히오리라

그날이 오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도 함께 뛰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서로 잡아 먹고 잡아 먹히는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지만 그 날이 오면 피조물들도 모두 고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2 절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에서 '고통'은 헬라어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왜 여기서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산모가 자녀를 얻기 직전에 겪는 해산의 고통은 다른 고통들과는 다릅니다.

해산하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일단 자녀를 낳으면 고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희가 밀려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겪고 나면 여기껏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미가 자녀를 갖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처럼 성도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고난의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롬 8: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택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기쁘고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낙심할 만한 일, 실패한 일, 실수한 일, 범죄한 일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조차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시키십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란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여 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누구를 택하느냐는 선택은 하나님 마음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 6: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아들의 형상 곧 죄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지금 삶 속에 고난이 있다해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 자녀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고난 가운데도 한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저주의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 불평없이 끝까지 순종하여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속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어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